2022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

Vol. 05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소비재인증사업본부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 소비재인증사업본부에서 발간하는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법규 변경사항 및 이슈사항 모니터링을 통하여 섬유 및 소비재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22

05

소비재인증사업본부

1. 월간 주요 이슈

01.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05P
02. 오래 쓴 바닥매트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06P
03.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13건 화재 사고로 피해 발생- 07P

2.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01. 패션업계, 메타버스 등에 업고 진화 중 09P
02. 기업생존 '가치(Value) 소비자 손에' 달림 10P
03. 소비재 기업 절반 이상 '친환경 트랜드, 수출에 영향 크다' 11P
04. '취미용품', '정보통신서비스' 국제거래 상담 증가율 높아 13P

3.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01. [일본] 섬유제품의 진드기 통과방지시험 개정 16P
02. [미국] CPSC 기저귀 교체용 제품 최종규제 발표 17P
03. [미국] PFAS 규제 확대 18P
04. [미국] 침구류 시장 동향 19P

4. 부록

[KOTITI, 소식 안내]
01. 유니클로 시험기관 지정안내 22P

[KOTITI, 신규사업 안내]
01. 보호복 시험평가 23P
02. 섬유제품 미세먼지 차단성능 평가 24P
03. 3D 버츄얼 패션 서비스 25P
04. 반려동물제품 인증제도 26P
05. 방사선물질 제품인증 서비스 27P
06.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제도 28P

2022

01 월간 주요 이슈

-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바닥매트, 수납가구 등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 한국소비자원 "오래 쓴 바닥매트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 소비자원-소방청,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13건 화재 사고로 15명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피해 발생-

월간 주요 이슈 1

산업통장자원부 보도자료(2022. 4. 20.)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 바닥매트, 수납가구 등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 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용품 : 서랍장, 등산용로프 등 3개

(서랍장, 등산용로프 등: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 어린이제품 : 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월간 주요 이슈 2

KBS KEWS(2022. 5. 3.)

한국소비자원 "오래 쓴 바닥매트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입력 2022.05.03 (12:59)

층간소음 등을 막기 위한 바닥 매트를 오래 쓰면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안전기준인 0.1%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표면이 마모되면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커진다며 어린이집 등에선 친환경 소재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용기간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시험결과]

사용기간 (구입연도)	검사대상 제품 수	0.1% 초과 제품 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량(제품 수)	안전기준(0.1%이하)을 초과한 제품의 평균값	요약
4년 이상~5년 미만 (2017년)	3개	3개(100%)	0.20%(2개), 0.70%(1개)	0.37%	구입3년이상경과 8개중 7개제품이 0.1%초과
3년 이상~4년 미만 (2018년)	5개	4개(80%)	0.20%(3개), 0.50%(1개), 그 외 0.1%이하(1개)	0.28%	
2년 이상~3년 미만 (2019년)	2개	0개(0%)	0.1% 이하(2개)	-	최근3년이내구입 6개중 1개제품이 0.1%초과
1년 이상~2년 미만 (2020년)	4개	1개(25%)	0.20%(1개), 그 외 0.1%이하(3개)	0.20%	

※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월간 주요 이슈 3

산업통장자원부 보도자료(2022. 4. 20.)

소비자원-소방청,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 13건 화재 사고로 15명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피해 발생 -

▪ 홈캠핑(Home-camping) 인기가 확산되면서 가정 등 실내에서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일명 ‘불멍’) 휴식을 즐기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무게 8kg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cm^2 이상)*을 준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2010년 이후 호주는 11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36건의 주택 화재와 105건의 상해 사고)된 후 안전기준 제정 및 운영('17.10.15.)

  ** (무게) 최소 1.4kg에서 최대 4.7kg, (바닥접촉면적) 최소 75.4cm^{2}에서 최대 502.3cm^2

-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최고 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

- 또한,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게 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어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

[전도시험 사진]

[연소 중 연료 주입 사례]

2022

02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 패션업계, 메타버스 등에 업고 진화 중
- 기업생존은 ‘가치(Value) 소비자 손에’ 달렸다
- 소비재 기업 절반 이상 ‘친환경 트랜드, 수출에 영향 크다’
- ‘취미용품’, ’정보통신서비스’ 국제거래 상담 증가율 높아

패션업계, 메타버스 등에 업고 진화 중

한국섬유신문(2022. 5. 16.)

패션업계가 발빠르게 메타버스 세계를 장악하고, NFT 커뮤니티 및 가상 인플루언서를 내세워 영역을 확장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트렌드에 발 빠른 패션업계가 메타버스 세계를 장악하고 한 단계 진화된 버전으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 컨설팅업체 PWC에 따르면 **2030년(1조7500억 달러)과 2025년(4764억 달러)**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19년(464억 달러)보다 **각각 926.7%, 3671.6%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패션업계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메타버스를 활용해 NFT 발행, 확장현실(XR) 기술을 적용한 패션쇼, 버추얼 인플루언서 기용, 가상현실(VR) 스토어, 증강현실(AR) 가상 피팅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코오롱스포츠'**는 업계 최초로 '샤이고스트스쿼드'와 협업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 샤이고스트스쿼드는 유명 크리에이터와 블록체인 전문가가 만든 인플루언서기반의 NFT 브랜드로, 대부분의 유저들이 유령 캐릭터를 자신의 첫 NFT로 소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동하고 있음.

– 컨템포러리 퍼포먼스 골프웨어 '왁'은 버추얼 인플루언서 수아를 발탁하였으며, 수아 사진은 가상인지 실제 인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음.

– 코오롱FnC의 업사이클링 기반 패션 브랜드 '래코드'는 지난 2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MZ세대가치소비의 중심!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래코드 RE;CODE]' 토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음.

- 이외에 여성 핸드백 브랜드 '쿠론'은 22S/S 시즌에 'VR SPACE 플로럴 원더랜드'를 선보인다.

– 쿠론이 손정민 아티스트와 협업해 선보인 아트 & 문화 결합 프로젝트임.

기업생존은 '가치(Value) 소비자 손에' 달렸다

한국섬유신문(2022. 5. 13.)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기업의 생존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재편이 필수라는 전망이 나왔다.

- 지난 9일 **미국면화협회가 주최한 코튼데이 행사**, 연사로 나선 조명광 대표가 지속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이 새로운 소비개념으로 떠오른 배경을 설명하며,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주문
  - 이제 지속가능 노력은 단순히 마케팅 트렌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의 바로미터**임.
- **(시장권력)** 소비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MZ세대**
  - 의사결정권자가 공급지에서 소비지역으로 재편되고, 소수 생산자 중심의 공장권력이 공급과잉과 유통, 정보 채널 증가로 소비자에게로 이동
  - 2021년 온라인 판매는 51.4%, 오프라인 48.6%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온라인으로의 시장형태 변화는 소비자역할의 이동을 의미**
  - 디지털 정보 탐색과 공유에 탁월한 MZ세대가 시장의 메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인구 5142만 명 중 MZ세대는 1736만으로 **약 33.7%가 해당**
  - '나는 가치소비자다' 그렇다 아니다 물음에 **그렇다가 79%를 차지**하였으며,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프리,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비건 등을 찾는데 적극적**임.
- 기업은 소비자 리드가 아닌 진정성을 보여야 생존이 가능하며, 지속가능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의사결정, 정책적 뒷받침이 구조적 변화를 유도
  - 예로, 신사동 아로마티카 플래그십 스토어는 빈병이나 빈케이스를 가지고 오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자 리드가 아닌 기업의 진전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소비 트랜드가 확산되면 선택받지 못한 기업은 낙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즈니스 환경개선이 시급함.

소비재 기업 절반 이상 '친환경 트랜드, 수출에 영향 크다'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22. 4. 25.)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기 위한 친환경 소비트랜드 대응전략에 대해 보도하였다.

- 세계는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환경 경각심이 이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 역시 지구에 주는 영향을 더 고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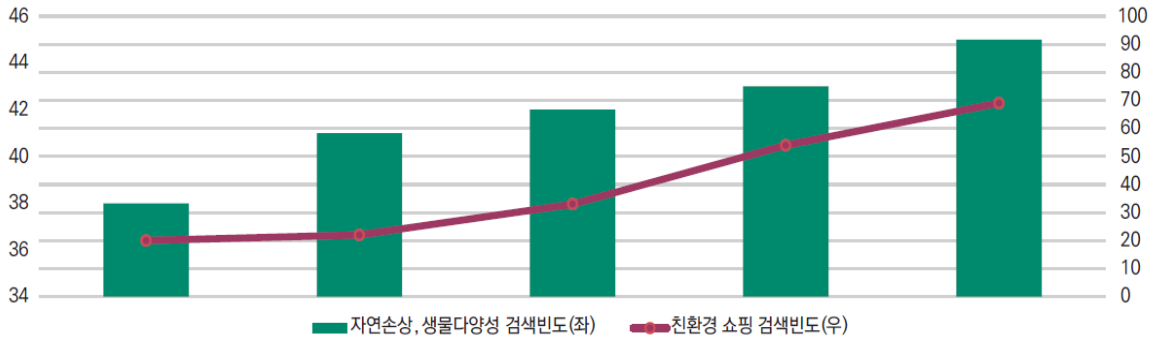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친환경 의식이 크게 높아져** 우리 기업과 정부가 **그린슈머(Greensumer)를 겨냥한 마케팅**을 비롯해 관련 정책지원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소비재 수출기업 4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1.3%의 기업이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의 수출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하였음.

– '팬데믹 이후 친환경 제품 수요가 높아졌다'는 기업도 52.1%에 달함.

– 글로벌 검색사이트인 구글에서 친환경 이슈 검색 빈도는 증가했으며, 쇼핑 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검색 비중도 크게 상승 중

[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주 : 최대값 = 100
자료 : EIU, Google Trends(2020)

- 최근 글로벌 소비재 시장은 '그린슈머'(Greensumer, 친환경의 Green과 소비자 Consumer의 합성어)가 주도

– 그린슈머는 2021년 기준 글로벌 소비자 중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20%p 가량 증가한 수치

–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태평양,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6개 지역의 친환경 소비시장을 ▲시장 성숙도, ▲소비자 영향력, ▲기업 인식, ▲정책 환경 등 4개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유망한 시장은 서유럽으로 나타났으며 오세아니아가 뒤를 이었음.

– 친환경 제품 수로는 서유럽이 120만여 개로 가장 많았고, 시장의 성장률은 오세아니아가 10.1%로 가장 높았음.

- 글로벌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대응전략이 필수이며 친환경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타겟해 소비자 경험 극대화, 친환경 경영활동 공개 등의 마케팅 전략과 함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요소를 적용해야 함.

– 그린슈머 세대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가치를 충족시켜준다는 만족감' 때문이며, 가격요인은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친환경 제품개발과 대응이 필요

[그린(G.R.E.E.N) 키워드로 분석한 친환경 트렌드 대응 전략]

전략키워드		전략	국내외 사례
G	Generation Green	친환경 세대를 공략하라	얼킨(Ulkin), GS25, 이마트, 슈가버블, 파타고니아
R	Reusable & Renewable	제품의 모든 과정에 재활용/재생소재를 고려하라. 포장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라	삼성전자, BGF리테일, 헬로우네이처, 마켓컬리, SSG닷컴, 애플
E	E-commerce	이커머스를 활용해 그린슈머에 접근해라.	아마존, 타오바오(알리바바), LF
E	Eco-friendly Mark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라 –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N	No Green Washing	진정성 있는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라	(실패사례) 스타벅스, SC 존슨

- 수출기업의 친환경 전환에 따른 가장 큰 애로는 '연구개발(R&D) 및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31.2%), '인증 취득 어려움'(19.3%)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25.7%), '인증 취득 지원'(25.2%), '마케팅 지원'(22.9%) 순으로 조사됨.

‘취미용품’, ’정보통신서비스’ 국제거래 상담 증가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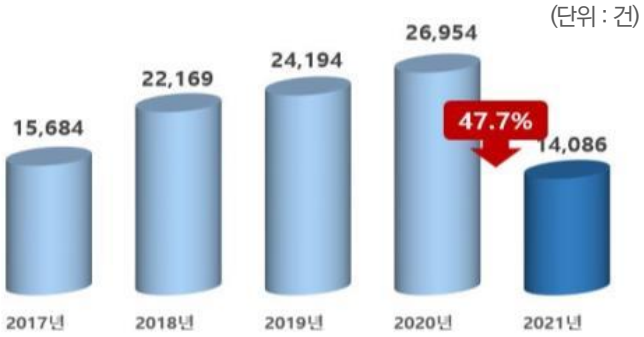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2. 4. 7.)

코로나 19로 항공권, 숙박 등 서비스 구매가 크게 줄면서 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이 감소하였으나, 물품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2021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14,086건으로 전년 26,954건 대비 47.7% 감소

[최근 5년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접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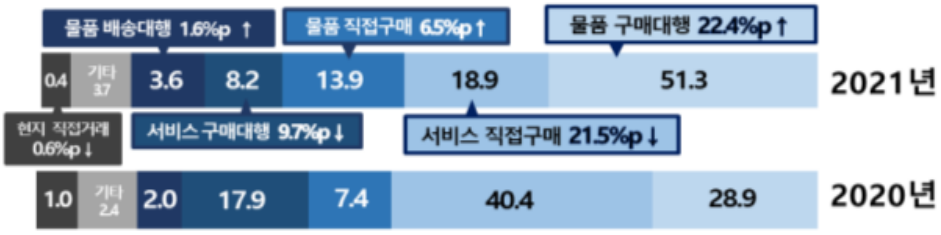
(단위 : 건)



- **(거래유형별)** ‘물품 거래 관련 상담(물품 구매대행·직접구매,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9,681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반면 ‘서비스 거래 관련 상담(서비스 구매대행·직접구매)’ 관련 상담은 3,821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

[연도별 거래유형별 비율]

(단위 : %)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 **직접구매**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 **(품목별)** 상세 품목이 확인된 13,588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이 4,11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가 2,141건(15.8%), 'IT·가전제품' 1,305건(9.6%), '취미용품'이 1,145건(8.4%), '신변용품' 1,097건(8.1%) 등의 순임.

[전년 대비 품목별 변화]

(단위 : 건, %)

품목명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의류·신발	4,183	15.8	4,114	30.3	▽1.6
항공권·항공서비스	11,109	41.9	2,141	15.8	▽80.7
IT·가전제품	1,564	5.9	1,305	9.6	▽16.6
취미용품[1]	801	3.0	1,145	8.4	42.9
신변용품[2]	1,240	4.7	1,097	8.1	▽11.5
가사용품[3]	910	3.4	794	5.8	▽12.7
숙박	3,438	13.0	735	5.4	▽78.6
식품·의약품	663	2.5	479	3.5	▽27.8
정보통신서비스[4]	430	1.6	461	3.4	7.2
문화·오락서비스[5]	337	1.3	315	2.3	▽6.5
서비스 기타[6]	589	2.2	214	1.6	▽63.7
화장품	223	0.8	172	1.3	▽22.9
기타(마스크, 요소수 등)	1,046	3.9	616	4.5	▽41.1
계	26,533	100.0	13,588	100.0	▽48.8

1) 서적, 악기, 장난감, 스포츠·레저 용품 등
2) 가방, 지갑, 귀금속, 시계, 선글라스, 벨트 등
3) 침구, 가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4) 게임, 인터넷기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통신(유심)서비스 등
5) 현지 액티비티, 콘서트, 스포츠경기, 등
6) 운송, 해외이사, 렌터카, 의료 서비스 등

- **(불만이유별)** 전체 상담 14,086건을 불만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5,331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송 관련' 불만이 2,386건(16.9%), '제품하자·품질 및 A/S' 관련 불만이 2,161건(15.3%) 순으로 임.

[전년 대비 불만이유별 변화]

(단위 : 건, %)

불만이유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13,645	50.6	5,331	37.9	▽60.9
배송 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3,038	11.3	2,386	16.9	▽21.5
제품하자·품질 및 A/S	2,072	7.7	2,161	15.3	4.3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04	14.8	1,776	12.6	▽55.6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826	6.8	720	5.1	▽60.6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84	3.3	470	3.4	▽46.8
표시·광고	265	1.0	304	2.2	14.7
결제관련	326	1.2	245	1.7	▽24.8
기타, 단순문의, 미상	894	3.3	693	4.9	▽22.5
계	26,954	100.0	14,086	100.0	▽47.7

2022

03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 [일본] 섬유제품의 진드기방지(JIS L 1920) 개정
- [미국] CPSC 기저귀 교체용 제품 최종규칙 발표
- [미국] PFAS 규제 확대
- [미국] 침구류 시장 동향

[일본] 섬유제품의 진드기 통과방지 시험(JIS L 1920) 개정

BOKEN TOPIC(2022. 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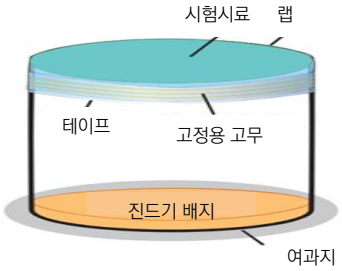
최근 JIS L 1920가 개정되면서, 진드기 통과방지 시험이 JIS법으로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에 의해 ISO21326:2019「Textile – Testing methods for determining the efficiency of products against house dust mite(섬유제품의 진드기저항성 성능 시험방법)」와 부합하였다.

[진드기방지 시험방법 비교 표]

JISL 1920 : 2022		JIS L 1920:2007	ISO21326 : 2019
기피시험	*1	기피시험	기피시험
증식 억제시험	*2	증식 억제시험	증식 억제시험
<u>통과방지 시험</u>	*3	–	통과방지 시험

1. 진드기가 시편에 접근하기 어려운지 확인 [적용대상] 침입저지법 : 카펫, 이불 등 / 유리관법 : 이불 솜, 깃털 등
2. 진드기가 시편에서 증식하기 어려운지 확인 [적용대상] A법 : 카펫, 이불 원단 등 / B법 : 이불 솜 등
3. 진드기가 물리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지 확인 [적용대상] 이불 원단, 매트리스 표면 등

- JIS L 1920:2022 추가 시험방법(통과방지 시험)

주 시험기구	유리관
시험조건	25℃±2℃, 75%±5%
통과방지 시험	유리관 개구부에 시험편을 올려놓고, 윗면에 랩으로 피복한다. 진드기 배지(진드기 수 : 약 10,000마리)를 투입 후, 다른 개구부에 여과지를 접착하고 밀봉하여, 24시간 후에 시료를 통과한 진드기의 수를 랩 위에서 관찰한다. 
표준포로 확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마다 필요
진드기 측정	랩 위에서 시료를 통과한 진드기 수를 생육 단계(유충 및 약충, 성충)에 따라 계수
시험 보고서 기재사항	표준포 · 시험시료와 모두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모든 데이터를 보고서에 기재

[미국] CPSC 기저귀 교체용 제품 최종규제 발표

Federal Register(2022. 04. 26.)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가정용 아기 기저귀 교체용 제품에 대한 최종규제를 발표하였다.

- 2022년 4월 26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가정용 아기 기저귀 교체용 제품에 대한 최종 규제를 발표
- 해당 규칙은 ASTM F2388-21의 업데이트 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유아용 기저귀 교환 제품에 대한 필수 표준 업데이트로 2022년 7월 31일부터 유아용 기저귀 제조사는 새로운 표준으로 제품 인증 필요

– 2018년 6월 26일 CPSC는 2018년 3월에 재 공표된 ASTM F2388-18을 참조하여, 16 CFR 파트 1235에 통합한 최종 규칙3을 발표 및 2019년 6월 26일에 발효되었으며, 위원회가 ASTM F2388-18을 필수 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첫 번째 개정판임.

- ASTM은 ASTM F2388-21을 전반에 걸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하였는데 실질적인 2가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웨빙 장력 당김 장치를 묘사하는 그림에 대한 개정 : 테스트 도구 또는 테스트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테스트 장비 치수를 명확히 하였음.

– 경고 텍스트의 대문자 변경

- 2022년 2월 1일, ASTM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ASTM F2388의 개정판 2021 버전을 발표했다고 CPSC에 알렸으며, CPSC는 CPSIA의 섹션 104에 따라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소비자 제품 안전 표준이 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미국] PFAS 규제 확대

CPSC, 케미컬뉴스(2022. 05. 09.)

아동용 제품, 의류, 베개, 가구 등에서 발견되는 PFAS에 대한 규제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유럽에서는 늦어도 2025년까지 PFAS의 단계적 폐지 요청과 2030년까지 PFAS 사용 금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된 바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품 포장에서의 PFAS 금지하겠다던 덴마크는 지난해 PFAS 화합물 그룹 전체에 대해 식품 포장재 사용을 금지
- PFAS에 대한 제한은 미국 각 주에서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캘리포니아 환경건강 유해성 평가국(OEHHA)에서는 PFAS 의 물질 중 하나인 PFOA를 CA65 발암물질 리스트에 추가하였으며, 유아, 아동용 제품 뿐만 아니라 직물에도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 워싱턴주는 2025년까지 의류와 화장품, 소방관 장비 등 다양한 제품에서 PFA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
  - 메인주와 메릴랜드주는 PFAS 사용이 불가피한 제품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PFAS를 추가한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하였고, 매사추세츠주는 카펫과 조리기구, 화장품을 포함해 일반 가정용품에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
- 이에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FAS 사용에 귀추를 주목

❖ PFOA 물질소개 및 사용현황

물질소개	- 과불소화 유기물질로 불리는 화합물 - 지속성, 살생물성, 독성을 가지고 있고 확산성이 커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 - 암을 비롯해 갑상선 질환, 간 질환, 면역 억제, 천식 등 다양한 건강 영향과 관련
사용현황	- 수분, 지방, 진흙 등에 저항하는 부드러운 표면 형성 때문, 주로 염이나 고분자에 결합된 형태로 사용 - 섬유 공정에서 직물, 카펫, 가죽의 보호를 위한 함침제, 발수 가공제 등으로 사용 - 마이크로웨이브용, 팝콘백, 패스트푸드, 캔디포장지, 피자박스 내장재에 사용

[미국] 침구류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2022. 5. 2.)

한국산 침구류 대미 수출이 2020년 대비 2021년 57%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잠시 주춤한 수요가 펜데믹 장기화 및 소비자 실내 생활 증가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글로벌 산업시장 조사 전문기관 Freedonia의 미국 침구 및 세면용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전체 침구 및 세면용 수건류(Towels and washcloths) 시장 수요 규모는 2010년부터 연평균 1.7% 성장한 약 99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으며, 2021년 기준으로 이 수요는 약 102억2000만 달러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2.3% 성장하며 2025년까지 약 110억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중 침대 시트 및 베개 커버 분야가 2020년 기준 약 3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1년에는 약 32억 달러, 2025년에는 약 3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

– 미국 침구류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과 함께 침구류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시장은 약화되었으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한 2020년 후반부터는 소비자의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및 인테리어 개선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며 해당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는 중

[2018~2025년 미국 침구 및 세면용품 시장의 세부 품목별 수요 변화 추이]

Table 4 | US Bed & Bath Furnishings Demand by Product, 2010 – 2025 (US$ mil) (단위: US$ 백만)

Item	2018	2019	2020	2021	2025	AAGR 10-20	CAGR 20-25
Total Demand	10325	10610	9900	10220	11070	1.7 %	2.3 %
Bedspreads, Blankets, & Comforters	3090	3360	3090	3170	3420	3.6 %	2.1 %
Sheets & Pillowcases	3240	3285	3070	3230	3640	1.5 %	3.5 %
Pillows & Cushions	1995	2055	1980	1980	2060	0.3 %	0.8 %
Towels & Washcloths	2000	1910	1760	1840	1950	0.9 %	2.1 %

Source: The Freedonia Group

주: 2021년 및 2025년 수치는 예상치

※자료: Freedonia(Bed & Bath Furnishings: United States, 2021년 4월 발간)

▪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 2021년 미국의 침구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2.8% 증가한 약 38억9664만 달러로 기록

– 독보적인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작년 중국으로부터의 침구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4.2% 증가

– 1위와 2위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시장의 대부분인 83%를 차지, 작년에는 태국, 포르투갈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기록돼 이목을 끌며, 특히 태국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수입액이 311.2% 증가

[최근 3년간 미국의 침구류 수입동향(HS Code 9404.90 기준)]

(단위 : 건, %)

순위	국가	연도별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9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22년	2021년	'21/'20
–	전체	2,897.76	2,934.87	3,896.64	100.0	100.0	100.0	32.8
1	중국	2,306.08	2,271.27	2,821.28	79.6	77.4	72.4	24.2
2	인도	256.18	270.26	422.34	8.8	9.2	10.8	56.3
3	멕시코	133.23	120.66	207.23	4.6	4.1	5.3	71.7
4	파키스탄	48.83	76.09	121.81	1.7	2.6	3.1	60.1
5	캐나다	31.64	36.15	58.31	1.1	1.2	1.5	61.3
6	태국	3.80	8.12	33.37	0.1	0.3	0.9	311.2
7	대만	17.00	12.37	23.77	0.6	0.4	0.6	92.1
8	베트남	7.08	16.16	17.82	0.2	0.6	0.5	10.3
9	포르투갈	6.72	8.84	17.70	0.2	0.3	0.5	100.2
10	엘살바도르	4.85	9.20	16.85	0.2	0.3	0.4	83.2
15	**대한민국**	**5.98**	**5.49**	**8.62**	**0.2**	**0.2**	**0.2**	**57.0**

※ 자료: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2022.04.28.)

– 작년 한국의 대미 침구류 수출 규모는 2020년 대비 무려 57% 증가

– 한국은 미국 전체 침구류 수입 시장에서 아직은 1% 미만의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5개년간 그 수입액 규모가 꾸준히 증가 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

▪ 시사점

– 침구를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가장 큰 화두 및 트렌드로 파악

– 최근에는 특히 Parachute Home, Pact, Bed Threads, Buffy 등과 같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DTC(소비자 직접 판매) 브랜드가 많이 등장,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싱한 섬유 원료와 사회적 책임을 다한 생산 방식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음.

– 특히 친환경적인 원료와 생산 방식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 인증을 활용한다면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Oeko-Tex-certified', 원료 목화솜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철저한 환경·사회적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인증하는 'GOTS-certified', 오리털 제품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Responsible Down Standard-certified' 등을 활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022

04 부록

- KOTITI, 신규소식 안내
  - KOTITI 방글라데시법인 유니클로 시험기관 지정안내

- KOTITI, 신규사업 안내
  - 화학보호복 시험평가
  - 섬유제품 미세먼지 차단성능 시험평가
  - 3D 버츄얼 패션 서비스
  - 반려동물제품 인증제도
  - 방사선물질 제품인증 서비스
  -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제도

KOTITI, 유니클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안내

UNIQLO

KOTITI Bangladesh Laboratory

유니클로(UNIQLO) 시험검사기관 지정 안내

KOTITI 방글라데시법인이 유니클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2년 4월 19일(화)

KOTITI 방글라데시 법인은 지난 2013년 10월 국내 시험검사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방글라데시에 진출하여 다양한 최첨단 시험설비를 보유, 다수의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시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섬유업체와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품질검사, 환경유해물질 분석, Trouble Shooting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험분석 업무를 근접 지원함으로써 섬유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및 한국 등의 지역으로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TITI Bangladesh Laboratory Contact Information]

Address | Natore Tower, 9th Floor, Plot No-32-D and 32-E , Road No-02, Sector No-03, Uttara Model Town, Dhaka, Bangladesh

Contact | 880-2-8956239, 8956240, 8960641

박봉규 책임연구원
bk_park@kr.kotiti-global.com

Hiroyuki Sadanaga
h-sadanaga@kaken.or.jp

Mayuko Fujita
fujita.mayuko@kaken.or.jp

Mustafizur Rahman
m.rahman@bd.kotitiglobal.com

Takeshi Ochi
t-ochi@kaken.or.jp

[KOTITI Head office(Seongnam) Contact Information]

Address | (13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유형진 팀장
bk_park@kr.kotiti-global.com
02-3451-7074

강윤석 선임연구원
ys_kang@kr.kotiti-global.com
02-3451-7433

정혜연 주임연구원
hyjung@kr.kotiti-global.com
02-3451-7053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OTITI, 보호복 시험평가

미생물 보호복

-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 박테리오파지 침투저항성
- 습식세균 침투저항성
- 건조미생물 침투저항성
- 액체에어로졸 침투저항성

국내 단독!!

물리적 및 역학

- 인장강도
- 인열강도
- 파열강도
- 굴곡저항
- 마모저항
- 린트발생량
- 표면저항
- 투습저항도
- 투습율
- 공기투과도

의료용 보호복

- 내수도
- 충격투과시험
-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 박테리오파지 침투저항성

화학 보호복

- 화학물질 투과저항
- 액체 화학물질 침투저항
- 가압하 액체화학약품 침투저항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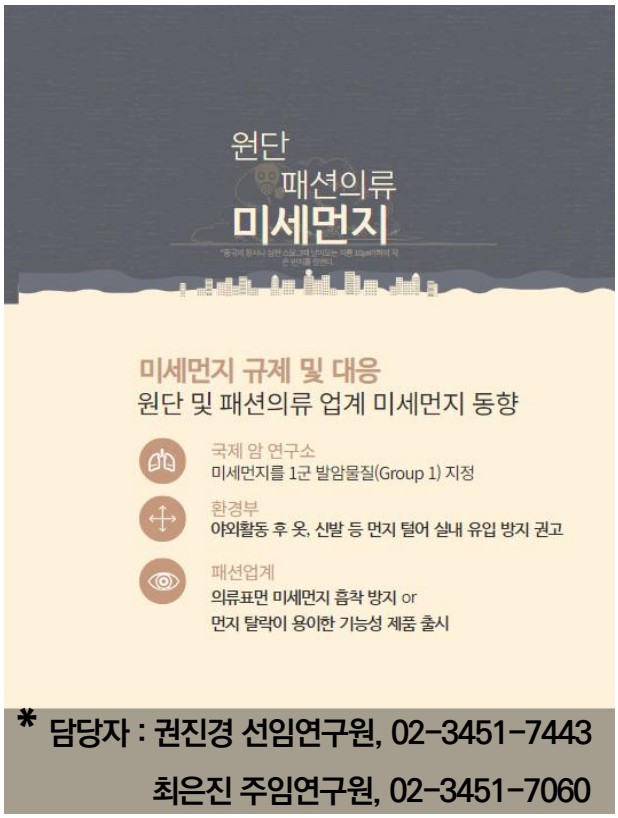
의뢰 절차

상담 ➤ 접수 ➤ 시험 ➤ 수납 ➤ 성적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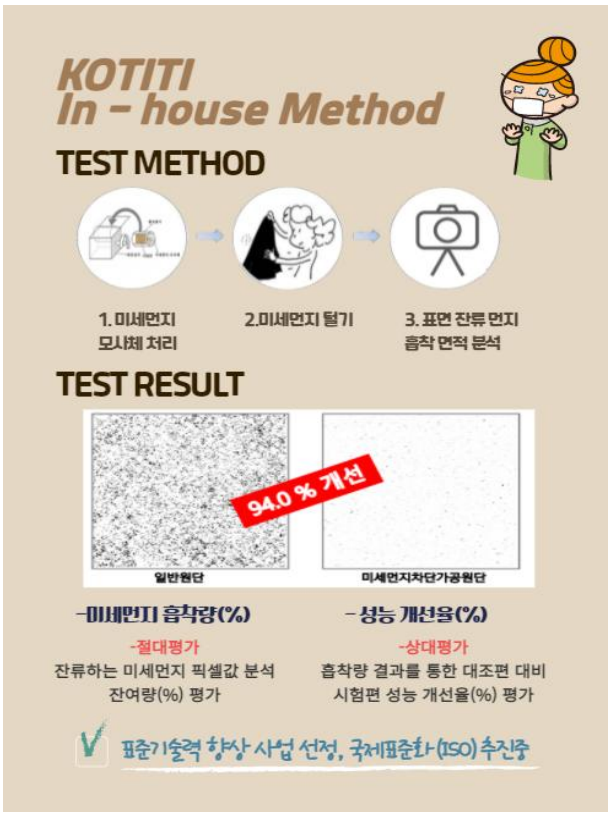
담당자 문의

(국내) 정우진 팀장	02-3451-7111	wj_jung@kr.kotiti-global.com
(국내) 권진경 선임연구원	02-3451-7443	jk_kwon@kr.kotiti-global.com
(국내) 최은진 주임연구원	02-3451-7060	ejchoi@kr.kotiti-global.com
(해외) 유형진 팀장	02-3451-7074	hjyoo@kr.kotiti-global.com
(해외) 김창훈 주임연구원	02-3451-7061	kimch@kr.kotiti-global.com

KOTITI, 섬유제품 미세먼지 차단성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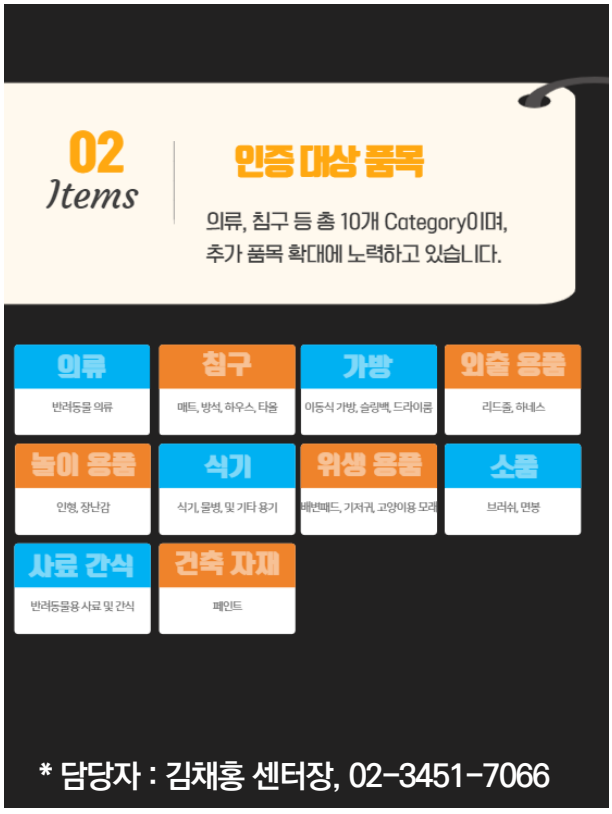


* 담당자 : 권진경 선임연구원, 02-3451-7443
최은진 주임연구원, 02-3451-7060



KOTITI, 3D 버츄얼 패션 서비스

KOTITI, 반려동물제품 인증제도



KOTITI, 방사선물질 제품인증 서비스

배경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기타 방사성물질 함유 제품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생활제품의 방사성물질 관련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인증 서비스 제공**

내용

"생활밀착형 제품, 어린이 제품, 식품, 건축자재 대상"

ㅇ 인증 세부 내용

구분	대상	분석장비	소요기간	비고
시스템&제품인증	생활밀착형 제품, 어린이제품, 건축자재, 식품	감마핵종분석기, RAD7	45일	품목 추가당 50% 할인
제품인증	생활밀착형 제품, 어린이제품, 건축자재	감마핵종분석기, RAD7	40일	품목 추가당 50% 할인

침대, 매트, 화장품, 위생용품, 치약, 구중청량제, 물수건, 면봉, 필터, 화장지, 렌즈, 마스크, 의류, 양말, 완구,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품, 건축자재, 식품 등

ㅇ 기관 인정사항 및 인증마크

<KOLAS 공인시험기관>

< 인증마크 >

절차

접수 > 시스템 평가 (시스템 인증의 경우) > 제품 평가 > 인증심의 > 인증서 발행

담당자 안내

이우람 파트장
Tel. (02) 3451-7364
E-mail. wrlee@kotiti.re.kr

전소담 주임연구원
Tel. (02) 3451-7337
E-mail. sd_jeon@kotiti.re.kr

KOTITI,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

인증 배경

- 안전성 보증이 어려운 저가의 수입 금속장신구 유입, 지속적 불법·불량제품 적발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의 혼탁 및 지속적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 이에 금속장신구 제품 안전 문화 정착 및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 제도가 구축됨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이란?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Allergy-Safe) 마크란? 금속장신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민간인증마크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니켈(Ni) 용출량 등을 평가하여, 제품의 안전성 증명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인증 절차

- **인증 접수**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시료 전달**
  - 금속장신구 안전인증 의뢰서 접수 (KOTITI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제품 심사**
  - **인증 시험 실시**
  - 인증제품 시험 · 분석 (최소 7일 소요)
- **성적서 발송**
  - **성적서 발송**
  - 우편 및 e-mail을 통한 성적서 발송 (분석비용 납부 이후 발급)
- **인증서 교부**
  - **인증서 교부**
  - 인증 심의 후 인증서 발송
- **인증마크 사용안내**
  - 마크 사용료 납부 및 인증협약
  - **인증 라벨(Tag) 발송**

인증 대상품목

귀걸이(피어싱 포함), 반지, 목걸이, 팔찌, 발찌, 손목시계, 안경테, 기타 장식품 등 피부에 접촉하는 금속 제품

* 단, 금(함량이 58.5%이상), 은 제품 등 귀금속제품은 제외

구분	직접적 장기 접촉 제품	간접적 접촉 제품
안전 기준	**니켈** 0.2㎍/㎠/week **코발트** 0.2㎍/㎠/week	**니켈** 0.5㎍/㎠/week **코발트** 0.5㎍/㎠/week
대상 품목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발)찌, 시계, 안경테 등	손톱장식품, 헤어핀 등 기타 제품

인증 취득 이점

해당 인증을 통해 당사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함으로써,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규제 (부속서22 접촉성 금속 장신구) 대응 가능
2.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 구매 유도
3. 제품 안전성 및 품질 보증에 따른 수출 경쟁력 확보

※ 인증 지원 사업 안내 ※

1. 사업 개요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제품안전기반조성사업 지원으로 기업 대상 시험분석 및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 무상 서비스 제공

2. 사업 목적

인증 보급, 확산 및 금속장신구 업계의 안전관리 인식 제고

3. 시범인증 기간 및 절차

- 기간 : 2021년 4월 1일 ~ 마감시
- 문의처 : KOTITI시험연구원 김미선 주임 (02-6191-6181)

4. 시범인증 대상 및 규모

인증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금속장신구 전용쇼핑몰	금속장신구 관련 대/중견기업 및 협·단체
지원 규모	기업	제품
	10개社	100개品

관련연락처 Contacts

부서	담당자	업무	전화 / 이메일
섬유생활제품팀	권진경 선임연구원	국내 규제 및 시험 상담	7443 / jk_kwon
제품인증팀	김문경 책임연구원	KC 법령 및 규제 상담	7057 / mkkim
글로벌사업팀	강윤석 선임연구원	일본 규제 및 시험 상담	7433 / ys_kang
글로벌사업팀	이나현 주임연구원	미주, 유럽 규제 및 시험 상담	6167 / leenh
글로벌사업팀	정혜연 주임연구원	보고서 작성 및 편집	7078 / hyjung

◆ 전화 : 02-3451-

◆ 이메일 : @kr.kotiti-global.com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 설립된 최초의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서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6개국, 12개 지역에 해외 법인과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중 4개 지역에는 시험실을 운영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근접 지원과 반세기 동안 축적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개요

1.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KOTITI시험연구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의 동의 없이 재생산, 배포,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본 보고서는 상업적 또는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otiti-global.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2201kim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kxeFxjxb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